



# 보 도 자 료

(총 8매, 세부자료 불임)

배포 : 2016년 5월 26일(목)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변서영 061-900-2215/ sybyeon@arko.or.kr

기획조정부 이재일 02-760-4714 / news@arko.or.kr

## 2016년 제15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한국관 전시 <용적률 게임 :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 개막

- 한국사회를 들여다보는 렌즈인 '용적률 게임' 을 소재로 전시 선보여
- 60만동의 건물과 130만개의 필지 등 방대한 데이터 분석
- 양의 게임을 질의 게임으로, 사적이익을 공적이익으로 바꾸어나가는 젊은 건축가들의 가능성에 주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 위원장 박명진)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세계 미술계 행사 중 하나인 베니스비엔날레 제15회 국제 건축전의 한국관 전시를 2016년 5월 26일 15:00, 이탈리아 베니스 현지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커미셔너를 맡고, 서울시립대학교 김성홍 교수가 예술감독으로서 총괄하여 준비한 한국관 전시는 2016년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의 전체 주제인 '전선에서 알리다(Reporting from the Front)'에 대응하여 지난 50년 동안 서울의 변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키워드이자 집단적 욕망을 드러내는 지수(指數)인 '용적률'을 한국 건축의 최전선으로 해석하였다.

한국인의 자화상이자, 한국 사회의 심층을 들여다보는 렌즈인 '용적률 게임'을 주제로 전시 선보여,

□ 한국관 전시주제인 <용적률 게임: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 The FAR (Floor Area Ratio) Game: Constraints Sparking Creativity>은 지난 50년 동안 '건설한국'의 동력이자, 한국인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용적

를을 향한 욕망을 사회경제적, 일상적, 창의적 관점에서 조명한 전시이다.

- 한국관 예술감독을 맡은 김성홍 교수(서울시립대 건축학부)는 신은기(인천대 교수), 안기현(한양대 교수), 김승범(브이더블유랩 대표), 정이삭(에이코랩 대표), 정다은(코레건축 실장) 공동큐레이터와 함께 지난 5개월 동안 공동작업을 해왔다. 이번 전시는 작가나 작품을 부각하는 일반적 전시와 달리, 김성홍 예술감독 및 5명의 공동큐레이터가 기획자와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참여작가인 특징을 갖고 있다.
- 전시팀은 용적률 게임의 대표 사례로 36개의 건축물을 선정하고 건축가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과 시각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강성은, 백승우, 정연두, 신경섭, 정진열 등 시각예술작가와 그래픽 디자이너를 초대하여 전시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했다.

###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된 전시장 내에서, 용적률 게임을 통한 다양한 건축적 실험과 사회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조망

- 전시장은 크게 다섯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 첫째, 용적률 게임의 정의, 선수, 규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도입부, <게임의 규칙-What are the Rules of the Game?>
  - 둘째, 다가구, 다세대, 상가주택 등 보편적인 유형과 36개 건축물을 모형, 다이어그램, 사진으로 표현한 중앙홀의 <게임의 양상-How is the FAR Game Played?>
  - 셋째, 초고밀도, 지가상승, 압축성장, 법과 제도, 건축물의 대형화와 양극화등 용적률 게임이 왜 한국에서 특별한지를 분석한 <게임의 배경-What are the Forces at Play in the FAR Game?>
  - 넷째, 용적률 게임이 벌어지는 우리 도시와 거리의 풍경을 시각예술작가와 일반인의 눈으로 포착한 <게임을 보는 관점 -Artist Perspectives on the FAR Game>
  - 마지막으로 용적률 게임의 사회, 경제, 문화적 가치를 요약한 결론부 <게임의 의미 -Why Does the FAR Game Matter?> 이다.

지난 50년간 견고했던 '대단위 개발신화'가 깨지는 가운데 나타난  
새로운 방식의 <용적률 게임>은 '소단위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보여줌

- 용적률 게임은 '땅-법-건물' 세가지 변수에 의해 만들어지며, 한 뼘의 공간이라도 더 요구하는 토지주, 건축주(소비자), 이에 부응해 건물을 짓는 개발업자, 건설사, 건축가(공급자), 그리고 이를 법과 제도로 통제하는 정부(통제자)가 선수로 참여하여 게임을 벌인다. 용적률 게임은 초고층 오피스부터 협소 주택에게 이르기까지 유형과 규모를 넘나들며 나타나는데, 지난 수십 년간 게임을 주도한 사람들은 토지주와 개발업자였으며, 건축가들은 공급자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다.
-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면서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감지되어 왔는데, 소수의 토지주와 건축주들이 최대 면적을 짓는 것이 최고 투자수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아파트와 고층건물 사이의 중간 건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홀로서기를 시작한 젊은 건축가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고, 한국관은 그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창의성에 주목했다.

한국관은 양의 게임을 질의 게임으로, 건물의 사적 이익을 도시의 공적 가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 한국의 건축가들에 주목

- 용적률 게임은 종상향, 용적률 인센티브와 같은 거시적 도시문제에서부터, 일상의 삶과 직결되는 발코니 확장, 방의 폭과 깊이, 인테리어, 천장고 등 미시적 건축요소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全方位的)으로 나타난다.
- 한국관은 36개 건축물의 모형, 다이어그램, 수치, 사진, 항공지도를 통해 건축가들이 게임을 위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디자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전시장 중앙에 총 72개의 모형이 놓이는데 이 중에서 36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 36개는 건축가들이 찾아낸 잉여공간을 표현했다.

- 전시장을 구성하는 세 번째 영역인 <게임의 배경>에서는 용적률 게임이 한국의 도시에서 왜 첨예하게 일어나는지를 알기 쉬운 그래픽으로 보여준다. 이를 위해 서울 전체 63만동의 건물 중 약 60만동의 건물과 130만개의 필지를 분석했다.
- 이를 통해 서울과 세계 거대도시의 인구수, 밀도, 집중도를 비교하고, 압축성장 과정에서의 지가상승, 공사비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율, 법과 제도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모와 유형의 변화, 서울의 필지, 블록, 지역 지구제의 특징을 단계적으로 보여준다.
- 전시장의 네 번째 영역인 <게임을 보는 관점>에서는 용적률 게임이 벌어지는 우리 도시와 거리의 풍경을 시각예술작가의 눈으로 포착하여 우리도시와 건축을 좁은 미학의 잣대만으로는 비판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건축가들이 대면하고 있는 조건과 제약, 그리고 남겨진 숙제가 결코 녹록지 않음을 보여준다.
- 흔하고 반복적이면서 지루한 익명의 건물들을 채집하듯 먹으로 그린 강성은의 'The House',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서 오히려 서울스러움을 발굴하는 백승우의 '4327 시리즈',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는 영상과 기억의 모노로그가 중첩되어 나타나며 현실과 환상을 함께 보여주는 정연두의 영상 'Building Recollections', 원경에서 혹은 하늘에서 신경섬이 포착한 혼성적이고 무질서해 보이기까지 한 36개의 건물의 배경은 용적률 게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잘 보여준다.
- 베니스 현지시간으로 26일 오후3시에 국내외 200여명의 인사가 방문한 가운데 한국관 개막식 행사가 열렸으며, 건축 및 미술계의 국제 유명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건축학과 첫 여성 학과장이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여성 건축가 중 하나인 윤미진 교수, 전세계 우수 비엔날레 간의 사업 연계, 교류 협력 등을 추진하는 세계 비엔날레협회의 이용우 회장, 스페인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이자 프린스턴 건축대학 학과장을 역임한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 등이 한국관에 방문하여 전시를 관람하였다.

- 이번 전시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의 프리뷰 기간을 거쳐 5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2016년도 건축전은 커미셔너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주후원사인 인스파이어IR 외에 두오모, LG전자, 복순도가, 삼아항업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끝/

- 붙임 1. 김성홍 예술감독 및 공동큐레이터 이력 1부  
2. 2016년도 전시참여진 1부  
3. 2016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관련 주요이미지(별도 웹하드)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고해상도 이미지는 [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 에서  
ID: 000000000 PW: 00000로 접속하셔서 Guest > 내리기전용 >  
20160526 개막식 폴더(비번 \*\*\*\*)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예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과 정보의 개방을 지향하는 정부 3.0 구현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061-900-2215 / sybyeon@arko.or.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 예술감독 및 공동큐레이터 약력

### ■ 예술감독



김성홍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전문분야 : 건축설계 및 이론

김성홍 교수는 2006년 워싱턴주립대 풀브라이트 연구교수, 2007~2009년 서울시립대 기획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을 지냈다. 2004년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부커미셔너를 역임했고, 2005년 한독 퍼블릭스페이스 포럼을 기획했다. 2007~2010년 3년 동안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탈린, 바르셀로나,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메가시티 네트워크 : 한국현대건축전'을 총괄기획하였다. 저서로는 『Megacity Network: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2007), 『도시 건축의 새로운 상상력』, (2009), 『길모퉁이 건축』(2011)을 포함하여 우리 도시와 건축에 관한 책을 국내외에 출간했다.

### ■ 공동 큐레이터

신은기 /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조교수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다양한 건축설계 및 마스터플랜 실무를 하였으며, 사회 기술적 조건에 대응하여 건축 디자인의 유형화와 그 변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11년 20세기 중반 미국 대량생산 주택이 만들어낸 주거 문화와 이를 바탕으로 나타난 건축가들의 실험 주택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인천대학교에서 사회적, 기술적 제도와 건축 디자인에서 공공성 확보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 및 교육을 하고 있다.

안기현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2010년에 AnLstudio라는 디자인스튜디오를 공동설립하여, 다양한 스케일의 작업을 시도해왔으며 2013년부터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에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2010년 Red dot Award에서 best of best 수상한 "Oceanscope". 호주 브리즈번 Asia Pacific Design Triennial "Lightwave", 종로 서촌에 극소주택 "몽당", 중국 광저우에 컨벤션홀 "The Suit", 신당동 근린생활시설 "다공"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MOMA에서 공동주최하는 "2014 Young Architect Program"에 최종후보였다. 서울시립미술관, 대림

미술관, 소마미술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아르코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시 및 단체전시에 작가로 참여하였으며, 설화수에서 주최하는 2014 설화문화전에서 아트디렉터 및 큐레이터로 참여하였다.

### 김승범 / VW LAB 대표

서울건축과 공간건축에서 다수의 건축 설계와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카이스트 미래도시연구소에서 건축과 IT를 접목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연구전담교수를 거쳐 현재 VW LAB의 대표로 있다. 2014년 Berlin AEDS Gallery의 "Seoul : Towards a Meta City" 전시에 공동 큐레이터로 참여하였다.

### 정이삭 / 에이코랩(a.co.lab) 대표

정이삭은 2013년 에이코랩(a.co.lab)을 설립하고, 'DMZ 평화공원 마스터플랜 연구', '철원 선전마을 예술가 창작소', '연평부대 도서관', '마장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헬로우뮤지움 동네미술관', '동두천 장애인 복지관 문화공간 조성' 등의 사회적 건축과 공공 연구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 외에 'REAL DMZ PROJECT 2013'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은 바 있으며, 도시 미술 프로젝트인 '2015 서울서울서울'을 공동 기획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5 공공디자인대상' 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2015 It-Award' 공공환경디자인상, 그리고 '2016 따듯한 공간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 정다운 / CoRe architects 팀장

studio asylum과 massstudies에서 실무를 하였으며 지금은 CoRe architects에서 건축, 도시 리서치를 하고 있다. 도시 변화 안에서 건축물들은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조사하고 이런 건축적 요소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표현할지에 대해 연구 중이다. 특히 서울에서 7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의 변화에 관심이 많다. 그동안 수집한 30년 이상 된 건축물 사진을 모아 'memoryscape' (2010)전시에 참여했고, 오픈하우스 서울 (2014) '초기아파트를 만나다' 답사, 서울시민건축학교(2015) 건축답사 등을 진행했다. 2015년에는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 SNS platform 구축을 위한 '#너머도시 #citythru' 를 기획하였다.

## 2. 2016년 한국관 전시 참여진

- 예술감독: 김성홍(서울시립대 교수)
- 공동큐레이터: 신은기(인천대 교수), 안기현(한양대 교수), 김승범(브이더블유랩 대표), 정이삭(에이코랩 대표), 정다운(코레건축 실장)
- 초대작가: 강성은, 백승우, 정연두, 신경섭
- 그래픽 디자인: 정진열, STUDIO TEXT
- 영문감수: Richard Enos
- 전시 스태프: 김형범, 최민정, 이우조, 도형록, 강희라, 김종울림, 곽윤재, 이정연, 박찬범, 이경재, 서정인/ 모형작업 코디네이터: 심현기/ 영상작업 : The Docent
- 홍보 및 대외협력: 한소영(밀라노), 신혜원(런던)
- 현지 전시 설치 및 코디네이터: 김은정

### ● 참여 건축사무소(건축가):

건축공방(심희준, 박수정), 바우건축(권형표, 김순주), 디자인밴드요앞 (신현보, 류인근, 김도란), 아파랏.체 (이세웅, 최연웅), 유.경건축 (권경은, 지정우) + 에이앤엠 (김희준), 에이엔디 (정의엽), 에스오에이 (강예린, 이치훈, 이재원), 깊은풍경 (천경환), 사이건축 (이진오, 박인영), 최페레이라건축 (최성희, 로랑 페레이라), 오비비에이 (이소정, 광상준), 디아건축 (정현아), 조호건축 (이정훈), 아키후드 더블유엑스वाई (강우현, 강영진), 와이즈건축 (장영철, 전숙희), 디자인그룹오즈 (신승수, 임상진, 최재원), 에스에스디 (박진희), 황두진건축사사무소 (황두진), 폴리머 (김호민), 이로재김효만건축사사무소 (김효만), 유타건축 (김창균), 아르키움 (김인철), 티알유건축(조성익), 경계없는작업실 (조성현, 문주호, 임지환, 류재희), 인터커드 (윤승현), 로디자인 (김동진), 오다건축 (오영욱), 방바이민 (오세민), 경영위치 (김승희), 운생동 (장운규, 신창훈), 매스스터디스 (조민석), 더시스템랩 (김찬중), 엔이이디건축 (김성우, 김상목), 에이앤엘 스튜디오 (안기현, 신민재, 이민수), 오씨에이 (임재용), 삼현도시건축 (김용남)

### ● 카운슬러: John Peponis

- 자문단: 임재용(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오씨에이대표), 이충기(서울시립대 교수, 예술감독 선정위원), 최문규(연세대 교수, 가아건축), 박철수(서울시립대 교수, 2015 광복70주년 주택도시전 기획연구위원)

### ● 카탈로그 기고:

John Peponis, James PARK, Chen Feng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Marc Simmons (FRONT Inc.), Rowan Moore (The Observer),  
Peter Winston Ferretto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Julian Worrall (The University of Adelaide),  
Meta Berghauer Pont, Lars Marcus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Neville Mars (MARS Architects),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Winy Maas (MVRDV)  
카탈로그 디자인 제작: SPACE (편집장 박성진, 편집 박계현, 디자인 최승태)

-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명진)

- 후원 : 인스파이어 IR, 두오모, 엘지전자, 복순도가, 삼아항업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변서영 대리 (061-900-2215)

2016년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전시추진단 정다운 사무국장  
([far.game.2016@gmail.com](mailto:far.game.2016@gmail.com)/ 02-6490-2774)